

RESEARCH ARTICLE

A study of the typology of tathatā in the *Samdhinirmocana-sūtra* and the *Cheng weishi lun*. Focusing on Woncheuk's Commentary on the *Samdhinirmocana-sūtra* and Kuiji's *Cheng weishi lun shuji*

Ahn, Yusook

Director, Muryangsuwon, Republic of Korea

『해심밀경』과 『성유식론』의 진여(眞如) 유형 연구: 원측
『해심밀경소』와 규기 『성유식론술기』를 중심으로*

안유숙

무량수원 원장

Corresponding Author: Ahn, Yusook (ysnirvana@daum.net)



OPEN ACCESS

Citation: Ahn, Yusook. A study of the typology of tathatā in the *Samdhinirmocana-sūtra* and the *Cheng weishi lun*. Focusing on Woncheuk's Commentary on the *Samdhinirmocana-sūtra* and Kuiji's *Cheng weishi lun shuji*.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7, 31-43.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6.37.3>

Received: July 16, 2026

Revised: August 14, 2026

Accepted: August 20, 2026

Copyright: © 2026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even and ten types of tathatā presented in the *Samdhinirmocana-sūtra* and the *Cheng weishi lun*, and compares their interpretations in Woncheuk's Commentary on the *Samdhinirmocana-sūtra* and Kuiji's *Cheng weishi lun shuji*. Its purpose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typologies and to demonstrate that the Yogācāra doctrine of tathatā is fundamentally structured as a theory of Buddhist practice. The study shows that the seven types of tathatā in the *Samdhinirmocana-sūtra* systematize the content of yathāvadbhāvikatā (如所有性) as the object of meditative contemplation, whereas the ten types of tathatā in the *Cheng weishi lun* explain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athatā through the stages of practice. Thus, the former represents the perspective of the object of contemplation, while the latter represents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A comparison of Woncheuk and Kuiji reveals that both accept the non-differentiated nature of tathatā and regard the sevenfold and tenfold classifications as provisional. However, Woncheuk adopts a harmonizing approach that integrates diverse textual traditions, whereas Kuiji systematically interprets the typologie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yuequan bianti (約詮辨體) and cong nengquan shuo (從能詮說).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transition from the sevenfold to the tenfold typology does not indicate a transformation of tathatā itself, but reflects a shift in Yogācāra scholasticism from explaining the true nature of reality to systematizing the stages of Buddhist practice. The seven and ten types of tathatā respectively correspond to the object of contempl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wakening, together constituting a coherent practical framework of Yogācāra.

Keywords: Seven Types of Thusness(tathatā), Ten Types of Thusness(tathatā), Woncheuk, Kuiji, Yogācāra Practice

* 이 연구는 202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23S1A5B5A17089487).

I. 서론

진여(眞如)는 산스크리트어 tathatā의 역어로, 대승불교에서는 법계(法界)·법성(法性)·실제(實際) 등과 함께 언어와 분별을 초월한 법의 본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유식교학에서 진여는 단순한 존재론적 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요가 수행자의 전통 위에서 성립한 유식교학은 진여를 지관(止觀) 수행의 소연(所緣)이자 수행 계위에서 점차 증득되는 대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수행론적 관점은 유전진여(流轉眞如)·실상진여(實相眞如) 등의 7종진여와 변행진여(遍行眞如)·최승진여(最勝眞如) 등의 10종진여라는 독특한 유형으로 전개된다.

7종진여는 『해심밀경』 「분별유가품」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설해지고 『성유식론』에서는 삼성(三性)과의 상섭(相攝)이라는 문맥에서 다시 정리된다. 반면 10종진여는 『성유식론』에서 수습위(修習位)의 전의(轉依)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다. 두 유형은 명칭과 성립 문맥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유식 진여설의 핵심 교설을 이룬다. 그렇다면 7종진여와 10종진여는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성유식론』에서 진여 유형론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나아가 두 유형은 유식 수행론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7종진여를 지관 수행의 소연 구조, 10종진여를 전의의 증득 차제라는 수행의 두 국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유식 진여설 전체가 하나의 수행론적 체계를 이루는 상보적 구조임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장(玄奘) 문하의 두 주석가인 원측(圓測)의 『해심밀경소』와 규기(窺基)의 『성유식론술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두 사람은 동일한 신역(新譯) 유식문헌을 공유하면서도 진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두 주석가의 해석을 비교하는 것은 유식 진여설의 전개 양상과 해석학적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식 진여에 관한 연구는 『유가사지론』·『해심밀경』·『성유식론』의 진여관, 원측의 진여 이해, 무분별지와 수행 구조 등을 중심으로 長谷川岳史(1997)·김치온(2003)·안성두(2016)·한자경(2001)·안유숙(2023)등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7종진여와 10종진여의 개별적 의미와 양자의 차이가 논의되어 왔으며, 원측과 규기의 진여 이해에 관한 비교 연구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7종진여를 지관 수행에서의 소연(所緣), 10종진여를 십지 수행에서의 증득(證得)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연계하고, 이를 하나의 수행론적 구조로 해석하는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7종진여와 10종진여를 하나의 수행론적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원측과 규기의 진여관을 비교함으로써 유식 진여설의 수행론적 성격과 그 해석학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II. 『해심밀경』의 진여설과 7종진여

1. 삼상(三相)과 진여: 원성실상으로서의 진여

『해심밀경』¹⁾에서 ‘진여’라는 용어가 교설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일체법상품」의 삼상설에서이다. 경은 제법의 상(相)을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의타기상(依他起相)·원성실상(圓成實相)의 세 가지로 나누고,²⁾ 원성실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엇을 제법의 원성실상이라 하는가. 일체법의 평등한 진여를 말한다. 이 진여에 대하여 보살들은 용맹정진을 인연으로 하고 여리작의(如理作意)와 전도되지 않은 사유를 인연으로 하여 능히 통달하며, 이 통달에 대해 점차로 수습(修習)하여 무상정등보리에 이르러 비로소 원만하게 증득한다.³⁾

이 정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원성실상은 곧 ‘일체법의 평등한 진여’로서, 진여가 삼상 가운데 원성실상의 자리에서 도입된다는 점이다. 둘째, 진여는 그 자체로 완결된 존재 규정이 아니라 ‘통달-수습-원만증득’이라는 수행의 과정과 결부되어 제시된다는 점이다. 진여는 보살이 정진과 여리작의를 통해 통달해야 할 것, 그리고 점차적인 수습을 통해 구경에 증득해야 할 것으로 규정된다. 『해심밀경』의 진여관이 처음부터 수행론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진여는 「승의제상품」에서 설해진 승의제(勝義諦)의 성격, 곧 언설을 떠나고(離言) 일미(一味)라는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경은 여래의 출세 여부와 무관하게 ‘제법의 법성은 안립되어 있고 법계는 안주한다’고 하여⁴⁾ 진여·법성의 항상성을 천명하는 한편, 승의제는

1) 본 연구는 원측·규기 주석의 저본인 현장역 『解深密經』(T16)에 의거한다.

2) 『解深密經』(T16, 693a15-17).

3) 『解深密經』(T16, 693a21-25).

일체에 두루하는 일미상(一味相)이어서 온(蘊)·처(處)·연기 등 어느 법에서 증득하든 차별이 없다고 설한다. 또한 「무자성상품」에서는 원성실상을 승의무자성성(勝義無自性性)이라 부르며, 그것이 법무아성(法無我性)에 의해 현현되는 것임을 밝힌다.⁵⁾ 요컨대 『해심밀경』의 진여는 ① 일체법에 평등하게 두루하는 일미의 법성이면서 ② 이무아(二無我)의 관찰을 통해 현현하고 ③ 수행의 과정에서 통달·증득되는 것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다. 7종진여는 이 가운데 특히 세 번째 특징, 곧 수행자의 인식대상으로서의 진여를 유형화한 것이다.

2. 「분별유가품」의 여소유성(如所有性)과 7종진여

「분별유가품」은 미륵보살의 물음에 대해 세존이 지관(止觀) 수행의 소연(所緣)·작의(作意)·계위 등을 광범위하게 결택하는 품이다. 7종진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품이 제시하는 지관의 소연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심밀경』에서 지관의 소연은 유분별영상(有分別影像)·무분별영상(無分別影像)·사변제(事邊際)·소작성판(所作成辦)의 4종 소연경사(所緣境事)로 제시되고, 무분별영상은 사마타의 소연, 유분별영상은 비발사나의 소연, 사변제와 소작성판은 지관 공통의 소연으로 배대된다.⁶⁾ 즉 수행자는 들은 교법을 사유하여 마음에 떠올린 영상(影像)을 소연으로 관찰하거나 무분별로 안주하는 데서 출발하여, 존재의 궁극(사변제)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수행의 성취(소작성판)에 도달한다. 이 사변제성(事邊際性)의 내용이 곧 진소유성과 여소유성이니, 『유가사지론』 「성문지」는 ‘사변제성이란 소연의 진소유성·여소유성을 말한다’고 하고, 여소유성을 ‘소연이 진실성(眞實性)이며 진여성(眞如性)인 것’이라고 정의한다.⁷⁾ 요컨대 지관 쌍운(雙運)의 소연 구조 안에 진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7종진여는 바로 그 자리, 곧 여소유성의 내용으로 설해지는 것이다.

7종진여는 보살이 ‘의(義, artha)를 요지(了知)하는 열 가지 상(相)’ 가운데 두 번째인 여소유성(如所有性, yathāvadbhāvikatā)의 내용으로 설해진다. 경에 따르면 진소유성(盡所有性, yāvadbhāvikatā)이 ‘잡염·청정의 제법이 존재하는 범위 전체’, 곧 오온·십이처와 같은 품별(品別)의 변제(邊際)를 가리키는 데 비해, 여소유성은 ‘일체 염정법(染淨法) 가운데의 진여’, 곧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성을 가리킨다.⁸⁾ 그리고 이 여소유성이 다시 일곱으로 나뉜다.

이것은 다시 일곱 가지이다. 첫째는 유전진여(流轉眞如)이니 일체행(一切行)에 선후(先後)가 없는 성품을 말하고, 둘째는 상진여(相眞如)이니 일체법의 보특가라무아성(補特伽羅無我性)과 법무아성(法無我性)을 말하며, 셋째는 요별진여(了別眞如)이니 일체행이 오직 식(識)일 뿐인 성품을 말하고, 넷째는 안립진여(安立眞如)이니 내가 설한 고성제(苦聖諦)를 말하며, 다섯째는 사행진여(邪行眞如)이니 내가 설한 집성제(集聖諦)를 말하고, 여섯째는 청정진여(淸淨眞如)이니 내가 설한 멸성제(滅聖諦)를 말하며, 일곱째는 정행진여(正行眞如)이니 내가 설한 도성제(道聖諦)를 말한다.⁹⁾

같은 문장이 『유가사지론』 「섭결택분」에 거의 축자적(逐字的)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보듯,¹⁰⁾ 7종진여는 유가행파 초기 문헌층에서 이미 성립해 있던 유형화이다. 그 구성을 보면 유전진여는 연기(緣起)하는 제행의 유전에 시간적 시원이 없다는 무시성(無始性)을, 상진여는 인무아·법무아의 이무아를, 요별진여는 ‘일체행이 유식(唯識)’이라는 유식성을 내용으로 하고, 안립·사행·청정·정행의 네 진여는 각각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내용으로 한다. 즉 7종진여는 연기설과 이무아설이라는 대승 공관의 핵심, ‘유식’이라는 유가행파 고유의 통찰, 그리고 초기불교 이래의 사성제를 모두 ‘진여’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 망라한 것이다. 아비달마적 사제관(四諦觀)과 반야경전에서 확립된 이무아의 진리가 유식성과 함께 요가 수행자가 사유해야 할 ‘참된 실재’의 목록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사성제와 같은 ‘안립제(安立諦)’적 내용이 그대로 진여라고 불린다는 점이다. 진여가 본래 언설을 떠난 비안립(非安立)의 일미상이라면, 고·집·멸·도라는 안립된 교설 내용이 어떻게 진여일 수 있는가. 이 물음은 뒤에 보듯 원측과 규기 주석의 주요 논점이 되거니와 『해심밀경』 자체의 문맥에서 보자면 7종진여는 진여 자체의 구분이라기보다 지관 수행자가 ‘진여를 사유하는’ 일곱 가지 방식이다. 7종진여가 지관의 소연으로 제시된다는 것, 곧 진여가 요가 수행자에게 ‘스스로 알아야 할 인식대상’으로 취급된다는 것이 「분별유가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여설의 요체이다.

경은 이어서 7종진여를 네 가지 평등(平等)으로 묶는다. 유전·안립·사행의 세 진여에 의해 일체 유정(有情)이 평등평등하고, 상·요별의 두 진여에 의해 일체 제법이 평등평등하며, 청정진여에 의해 성문·독각·무상정등각의 삼승 보리가 평등평등하고, 정행진여에 의해 지관에 포섭

4) 『解深密經』 (T16, 692a18-19).

5) 『解深密經』 (T16, 694a26-29).

6) 『解深密經』 (T16, 697c20-24).

7) 『瑜伽師地論』 (T30, 427b-c).

8) 『解深密經』 (T16, 699c18-19).

9) 『解深密經』 (T16, 699c19-700a5).

10) 『瑜伽師地論』 (T30, 725b-c). 「攝決擇分」의 해당 문단은 『해심밀경』 「분별유가품」의 문장과 거의 축자적으로 일치한다.

되는 혜(慧)가 평등평등하다는 것이다.¹¹⁾ 이 사평등(四平等)의 구조는 일곱 진여가 각각 유정·제법·보리·수행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평등성’을 담보하는 원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진여의 유형화가 진여의 분할이 아니라 진여가 일미로서 관철되는 영역들의 열거임이 『해심밀경』 자체에서 이미 시사되고 있는 셈이다.

3. 진여작의(眞如作意)와 영상(影像)의 초월: 명상 수행의 구조

7종진여가 지관의 소연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진여가 명상 수행의 인식적 토대로 기능함을 함축한다. 이 점은 「분별유가품」의 진여작의(眞如作意) 교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륵보살이 ‘지관을 닦는 보살들은 무엇에 의해 어떻게 제상(諸相)을 제거하는가’라고 묻자, 세존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진여작의에 의해 법상(法相)과 의상(義相)을 제거한다. 명칭과 명칭의 자성에 대해 얻을 바가 없을 때에는 그것이 의지하는 상(相)도 관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제거한다. …… (미륵이 묻기를) 요지되는 진여의 의상(義相), 이 진여의 상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세존이 답하기를) 요지되는 진여의 의(義)에는 도무지 상이 없고 얻을 바도 없으니, 무엇을 제거하겠는가.¹²⁾

지관 수행자는 문熏습(聞熏習)에 의거하여 교법의 영상을 소연으로 삼지만, 그 영상은 어디까지나 명칭과 분별에 의해 구성된 상(相)이다. 진여작의는 법의 상이든 의미의 상이든 이 상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작의이며, 그 궁극에서는 ‘진여의 상’이라 할 만한 것조차 남지 않는다. 진여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또 하나의 상이 아니라, 상이 소진된 자리에서 무소득(無所得)으로 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상 수행의 구조가 ‘영상의 구성 → 상의 점차적 제거 → 무상(無相)·무득(無得)의 진여 현전’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전 과정에서 작의가 지향하는 대상이 일관되게 진여를 향한다는 점, 이것이 「분별유가품」이 보여주는 진여의 수행론적 기능이다.

이와 같은 수행의 전개는 4종 소연의 마지막인 소작성판(所作成辦)에서 확인된다. 「성문지」는 소작성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무엇이 소작성판인가. 관행을 닦는 자가 사마타·비발사나를 닦고 익히며 거듭 닦아 익히는 것을 인연으로 하여, 영상을 소연으로 하는 모든 작의가 원만해지고, 이 원만함으로 인해 곧 전의(轉依)를 얻어 일체의 추중(龜重)이 모두 소멸하며, 전의를 얻었으므로 영상을 초월하여 곧 알아야 할 사(事)에 대해 무분별의 현량(現量)의 지견(智見)이 생겨나는 것이다.¹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4종 소연의 체계가 의지체의 전환, 곧 전의(轉依)를 그 전개 과정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상을 소연으로 하는 작의가 원만해지면 그 성취는 곧 전의로 귀결되며, 수행자는 전의를 통해 영상, 곧 표상의 매개를 초월하여 사물 자체를 무분별로 직관하는 현량지(現量智)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4종 소연은 단순히 관찰 대상을 분류한 체계가 아니라, ‘표상을 통한 관찰(유분별·무분별영상) → 존재의 궁극적 실상에 대한 통찰(사변제, 즉 진소유성·여소유성) → 전의를 통한 표상의 초월과 현량지의 성취(소작성판)’라는 명상 수행의 전개 과정을 체계화한 수행론적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진여, 곧 여소유성은 수행의 전개를 관통하는 핵심 대상이자 수행이 궁극적으로 증득하는 실재로 기능한다. 요컨대 초기 유식 문헌에서 진여의 유형화는 존재론적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인식 전환과 깨달음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수행론적 장치로 이해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유식론』의 오위(五位)와 전의(轉依) 체계는 바로 이러한 수행론적 구도를 계승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III. 『성유식론』의 진여설: 7종진여와 10종진여

1. 삼성상섭(三性相攝) 문답과 7종진여

『성유식론』에서 7종진여는 삼성설(三性說)을 결택하는 문맥에서 등장한다. 『성유식론』은 삼성이 심(心)·심소(心所)를 떠나지 않음을 밝힌 뒤, 허공·택멸 등의 무위법과 삼성의 상섭(相攝)을 논하고, 이어서 ‘이와 같은 삼성과 칠진여는 어떻게 서로 포섭되는가’라는 문답을 세운다.

11) 『解深密經』(T16, 700a5-11).

12) 『解深密經』(T16, 700c20-27).

13) 『瑜伽師地論』(T30, 427c).

칠진여란, 첫째는 유전진여이니 유위법의 유전하는 실성(實性)을 말하고, 둘째는 실상진여(實相眞如)이니 이무아에 의해 드러나는 실성을 말하며, 셋째는 유식진여(唯識眞如)이니 염정법이 유식이라는 실성을 말하고, 넷째는 안립진여이니 고(苦)의 실성을, 다섯째는 사행진여이니 집(集)의 실성을, 여섯째는 청정진여이니 멸(滅)의 실성을, 일곱째는 정행진여이니 도(道)의 실성을 말한다.¹⁴⁾

『해심밀경』의 7종진여와 비교할 때, 『성유식론』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두드러진다. 첫째는 명칭의 변화이다. 경의 상진여(相眞如)는 실상진여(實相眞如)로, 요별진여(了別眞如)는 유식진여(唯識眞如)로 개칭된다. 이는 교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기보다, 각각의 진여가 의미하는 바, 곧 ‘이무아(二無我)에 의해 드러나는 실상’과 ‘염정법의 유식적 실성’을 명칭 자체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는 정의 방식의 정형화이다. 『해심밀경』이 ‘일체행에 선후가 없는 성품’, ‘내가 설한 고성제’와 같이 각 항목을 서술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성유식론』은 일곱 진여를 모두 ‘~의 실성(實性)’이라는 통일된 형식으로 압축하여 제시한다. 이는 진여가 각 법의 영역에 내재하는 참된 성질임을 술어의 형식 자체를 통해 명시한 것이다. 셋째는 교설이 배치되는 문맥의 변화이다. 『해심밀경』에서 7종진여가 지관 수행의 소연으로 제시되어 실천적·수행론적 맥락에 놓여 있었다면, 『성유식론』에서는 그것이 삼성(三性)과의 상섭 관계를 해명하는 교학적 분류 체계 안에 배치된다. 다시 말해, 『해심밀경』에서 수행의 관찰 대상이었던 7종진여가 『성유식론』에서 삼성설과의 상섭관계를 통해 수행론적 개념에서 교학적 범주로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일곱 실성은 원성실에 포섭되니 근본지와 후득지 두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상(相)에 따라 포섭하자면 유전·고·집의 셋은 앞의 두 성품(변계소집성·의타기성)에 포섭되니 망집(妄執)과 잡염이기 때문이요, 나머지 넷은 모두 원성실에 포섭된다.¹⁵⁾

즉 진여 자체의 측면에서는 일곱 진여 모두가 원성실성에 속한다. 그러나 각 진여가 실성으로 드러내는 법의 측면에서는 유전진여[유위법의 유전], 안립진여[고제], 사행진여[집제]는 잡염법을 내용으로 하므로, 약전(約詮)의 입장에서는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에 상섭된다. 이처럼 『성유식론』은 진여 자체와 진여가 실성으로 성립시키는 대상법을 구분하는 이중의 관점에서 7종진여를 해석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원측은 이러한 이중적 해석을 『성유식론』 진여론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하였으며, 규기는 이를 ‘약체(約體)’와 ‘약전(約詮)’의 구분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명하였다.

2. 유식실성(唯識實性)으로서의 진여: 제25송

7종진여의 체계가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유식론』이 진여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식삼십송』 제25송에 대한 『성유식론』의 주석을 보면, 제25송은 ‘이 제법의 승의는 또한 곧 진여이니, 항상 그 성품과 같기 때문이며, 곧 유식의 실성이다(此諸法勝義 亦即是眞如 常如其性故 即唯識實性)’라고 설한다. 이에 대해 『성유식론』은 먼저 승의제를 세간승의(世間勝義)·도리승의(道理勝義)·증득승의(證得勝義)·승의승의(勝義勝義)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계송에서 말하는 ‘승의’를 최상의 승의인 승의승의(勝義勝義), 곧 일진법계(一眞法界)로 규정한다. 이어서 논은 진여의 어의(語義)를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¹⁶⁾

이 제법의 승의는 또한 곧 진여이다. 진(眞)은 진실함을 말하니 허망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여(如)는 여상(如常)함을 말하니 변역(變易)이 없음을 나타낸다. 이 진실함이 일체의 지위에서 항상 그 성품과 같으므로 진여라 하니, 곧 담연(湛然)하여 허망하지 않다는 뜻이다.¹⁷⁾

‘일체의 지위에서 항상 그 성품과 같다(於一切位常如其性)’는 구절은 진여의 불변성과 편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여가 유식성(唯識性)의 진실한 측면, 곧 원성실성과 동일한 차원의 개념임을 밝히는 근거가 된다. 이어 『성유식론』은 유식성에 허망(虛妄)과 진실(眞實), 세속(世俗)과 승의(勝義)의 두 층위가 있음을 구분하고, 여기서 말하는 ‘실성(實性)’은 허망·세속에 대비되는 진실·승의의 차원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7종진여의 정의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실성’이라는 술어 역시 각 진여가 원성실성의 차원에서 성립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성유식론』이 진여·법계·실제 등의 다양한 명칭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을 모두 이공

14) 『成唯識論』 (T31, 46c20-27).

15) 『成唯識論』 (T31, 46c27-47a1).

16) 『成唯識論』 (T31, 48a).

17) 『成唯識論』 (T31, 48a-b).

(二空)에 의해 드러나는 소증(所證)의 동일한 실재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유식론』의 진여는 『대승기신론』 계통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연(緣)을 따라 생멸을 전개하는 진여수연(眞如隨緣)의 진여가 아니라, 이공을 관하는 무분별지(無分別智)에 의해 증득되는 부동(不動)의 소증진여를 가리킨다.

3. 무분별지의 진여 증득과 전의: 인식 전환의 구조

10종진여를 고찰하기에 앞서, 『성유식론』이 진여의 증득을 수행자의 인식 전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유식론』은 유식성(唯識性)을 증득해 가는 과정을 자량위(資糧位)·가행위(加行位)·통달위(通達位)·수습위(修習位)·구경위(究竟位)의 오위(五位)로 체계화한다. 이 가운데 가행위의 보살은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四善根)을 닦으면서 소취(所取)와 능취(能取)의 공함을 점차 관찰하지만, 아직 미세한 상(相)에 의지하여 관하는 단계이므로 유식의 참된 승의(勝義)를 직접 증득하지는 못한다.¹⁸⁾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통달위, 곧 견도(見道)에 이르러 비로소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성유식론』은 『유식삼십송』 제28송, ‘만약 소연에 대하여 지(智)가 도무지 얻는 바가 없을 때, 그때 유식성(唯識性)에 머무니, 이취(二取)의 상(相)을 떠났기 때문이다.’를 주석하면서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살이 소연의 경계에 대해 무분별지가 도무지 얻는 바가 없어 갖가지 회론의 상을 취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유식의 참된 승의성에 실제로 머문다고 이름하니, 곧 진여를 증득하여 지(智)와 진여가 평등평등하며, 능취·소취의 상을 함께 떠났기 때문이다.¹⁹⁾

‘지(智)와 진여가 평등평등하다(智與眞如平等平等)’는 구절은, 진여의 증득이 주관인 객관을 인식하는 통상적인 인식 작용이 아니라,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이원적 구조가 소멸한 무분별지(無分別智)의 증득임을 보여준다. 이는 II장에서 살펴본 「분별유가품」의 수행 구조, 곧 상을 점차 제거하여 마침내 무소득(無所得)의 경지에서 진여가 현전하는 과정이 『성유식론』에서는 견도(見道)의 무분별지 이론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진여의 증득이 수행자의 존재 전체의 전환으로 완성되는 것이 곧 전의(轉依)이다. 『성유식론』은 전의의 ‘의(依)’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한다.

첫째, 의(依)는 염정법(染淨法)의 소의(所依)인 의타기성(依他起性)을 가리킨다. 이 경우 전(轉)은 전사(轉捨)와 전득(轉得)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무분별지를 거둬 수습하여 본식(本識)에 잠재한 이장(二障)의 추중(麤重)을 끊음으로써, 의타기성 위에 허망하게 가립된 변계소집성을 버리고(轉捨), 의타기성에 본래 갖추어진 원성실성을 증득한다(轉得). 그 결과 번뇌장의 전환을 통해 대열반(大涅槃)을 성취하고, 소지장의 전환을 통해 무상각(無上覺)을 증득하게 된다.²⁰⁾

둘째, 의(依)는 유식진여(唯識眞如) 자체를 가리킨다. 진여는 생사와 열반에 공통하는 소의이므로, 전의는 결국 진여를 직접 증득하는 차원에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범부는 전도(顛倒)된 분별로 말미암아 이 진여를 깨닫지 못하므로 무시 이래(無始以來) 생사의 괴로움을 유전하지만, 성자는 전도를 여의고 진여를 증득함으로써 마침내 열반의 궁극적 안락을 성취한다.²¹⁾

이 둘째 해석은 『성유식론』 진여설의 수행론적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진여는 생사와 열반이 함께 의지하는 근거로서, 범부에게는 미혹의 대상으로 남아 생사의 근거가 되고, 성자에게는 깨달음의 대상으로 증득되어 열반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전의(轉依)란 진여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동일한 진여에 대한 수행자의 인식과 증득 방식이 미(迷)에서 오(悟)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진여는 그 자체로는 언제나 부동(不動)이지만, 이를 미혹하느냐 깨닫느냐에 따라 수행자의 존재 양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문지」가 소작성판에서 ‘작의의 원만 → 전의 → 영상의 초월 → 무분별현량지’의 순서로 제시한 수행 구조는 『성유식론』에 이르러 ‘무분별지의 훈수(熏修) → 이장(二障) 추중의 단멸 → 전사(轉捨)·전득(轉得) → 대열반(大涅槃)·무상각(無上覺)’이라는 오위(五位)의 수행 체계 속에서 한 층 정교하게 이론화된다. 10종진여는 바로 이러한 전의의 과정을 진여의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으로, 수습위(修習位)의 십지(十地)에서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진여의 증득 양상을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 『成唯識論』 (T31, 49c).

19) 『成唯識論』 (T31, 49c).

20) 『成唯識論』 (T31, 51a).

21) 『成唯識論』 (T31, 51a).

4. 전의(轉依)와 10종진여: 제29송

10종진여는 『유식삼십송』 제29송, ‘무득(無得)·부사의(不思議)한 이것이 곧 출세간지(出世間智)이니, 두 가지 추중(麤重)을 버리므로 곧 전의(轉依)를 증득한다.’에 대한 『성유식론』의 주석 가운데, 수습위(修習位)를 해설하는 부분에서 제시된다. 『성유식론』은 먼저 ‘어떻게 두 가지 전의를 증득하는가. 십지(十地)에서 열 가지 뛰어난 수행(十勝行)을 닦고, 열 가지 중장(重障)을 끊으며, 열 가지 진여를 증득함으로써 두 가지 전의를 성취한다.’고 수행의 전체 구조를 제시한다.²²⁾ 이어 각 지(地)에 대응하는 십바라밀의 십승행(十勝行)과 십중장(十重障)을 차례로 설명한 뒤, 각 지에서 증득되는 10종진여를 열거한다. 즉 『성유식론』에서 10종진여는 십지 수행을 통해 전의를 성취해 가는 과정을 진여의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 명칭과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 ① 변행진여(遍行眞如): 이공(二空)에 의해 드러나며 두루하지 않는 법이 하나도 없음.
- ② 최승진여(最勝眞如): 가없는 공덕을 갖추어 일체법 가운데 가장 수승함.
- ③ 승류진여(勝流眞如): 이 진여에서 흘러나온 교법이 다른 교법보다 지극히 수승함.
- ④ 무섭수진여(無攝受眞如): 계속(繫屬)되는 바가 없어 아집 등의 의지처가 되지 않음.
- ⑤ 유무별진여(類無別眞如): 안(眼) 등과 같이 유(類)의 차별이 없음.
- ⑥ 무염정진여(無染淨眞如): 본성이 무염이므로 뒤에 비로소 청정해진다고 말할 수 없음.
- ⑦ 법무별진여(法無別眞如): 교법이 많고 갖가지로 안립되어도 다름이 없음.
- ⑧ 부증감진여(不增減眞如): 증감의 집착을 떠나 염정에 따라 증감하지 않으며, 상토자재소의진여(相土自在所依眞如)라고도 함.
- ⑨ 지자재소의진여(智自在所依眞如): 이를 증득하면 무애해(無礙解)에 자재를 얻음.
- ⑩ 업자재등소의진여(業自在等所依眞如): 이를 증득하면 신통·다라니·삼매의 작업에 모두 자재함.

10종진여의 연원은 『십지경』의 십지설을 진여 증득의 단계로 재해석한 『섭대승론』과 『중변분별론』의 십지 법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통에 따라 『성유식론』은 초지(初地) 환희지(歡喜地)에서는 변행진여(遍行眞如)를, 제2지 이구지(離垢地)에서는 최승진여(最勝眞如)를 증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등, 열 가지 진여를 십지의 각 단계에 하나씩 배대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성유식론』이 이러한 유형화를 진여 자체의 실질적 차별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유식론』은 ‘진여의 성품은 실로 차별이 없으나 수승한 공덕에 따라 열 가지를 가립(假立)한다. 초지에서 이미 일체에 통달하지만, 능히 증득하는 행이 아직 원만하지 못하므로 그 점진적 원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뒤의 아홉 진여를 차례로 건립한다.’고 설명한다.²⁴⁾ 즉 10종진여는 진여 자체에 열 가지 차별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일미평등(一味平等)한 진여가 십지의 수행이 심화됨에 따라 드러내는 공덕의 차이에 의거하여 가립된 수행론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5. 7종진여와 10종진여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종진여와 10종진여는 진여를 이해하는 관점과 그것이 제시되는 수행론적·교학적 맥락을 서로 달리한다.

첫째, 성립된 문맥의 차이이다. 7종진여는 『해심밀경』에서는 지관(止觀) 수행의 소연(所緣)으로 제시되고, 『성유식론』에서는 이를 삼성(三性)과의 상설 관계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진여의 교학적 위치를 밝히는 맥락에서 논의된다. 이에 비해 10종진여는 오직 오위(五位)의 수행 체계 가운데 수습위(修習位)의 전의(轉依)를 해명하는 수행론적 맥락에서 설해진다.

둘째, 진여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7종진여는 진여가 각 법의 실성으로 드러나는 양상, 곧 유전하는 제행, 이무아, 유식성, 사성제 등 진여가 실성으로 드러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반면 10종진여는 진여 자체를 나눈 것이 아니라, 십지 수행이 심화됨에 따라 드러나는 공덕의 차이에 따라 그 증득 양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가 관찰의 대상이 되는 진여를 중심으로 한 소연(所緣)의 분류라면, 후자는 진여를 증득해 가는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증득(證得)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진여일미(眞如一味)’라는 동일한 전제 위에 서 있다. 『성유식론』이 7종진여를 논하면

22) 『成唯識論』(T31, 51a21-23).

23) 『成唯識論』(T31, 54b-c). 十眞如의 명칭과 정의는 이 부분에 열거된다.

24) 『成唯識論』(T31, 54b-c).

서 일곱 진여 모두를 원성실성에 포섭하는 것과, 10종진여를 설명하면서 ‘진여의 성품은 실로 차별이 없다’고 밝히는 것은 모두 진여 자체에는 어떠한 실질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원리를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진여는 그 자체로는 언제나 하나이며, 7종과 10종이라는 구분은 진여 자체의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7종진여는 진여가 각 법의 실성으로 드러나는 양상에 따른 분류이고, 10종진여는 진여를 증득하는 수행의 심화 과정에 따라 각각 가립된 구분일 뿐이다.

7종진여 가운데 실상진여는 ‘이무아(二無我)에 의해 드러나는 실성’으로 정의되고,²⁵⁾ 10종진여의 첫째인 변행진여는 ‘이공(二空)에 의해 드러나며 두루하지 않는 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정의된다.²⁶⁾ 이무아와 이공이 동일한 사태의 다른 표현임을 감안하면, 두 정의는 실질적으로 겹친다. 곧 초지(初地) 견도에서 증득되는 변행진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7종 유형의 기축을 이루는 실상진여가 증득의 국면에서 ‘일체 법에 두루함(遍行)’이라는 공덕의 측면으로 다시 명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규기 역시 변행진여를 주석하면서 『섭대승론』 십지설에 대한 세친의 해석, 곧 ‘이 법계는 일체행에 두루하니, 조금이라도 무아가 아닌 법이 없기 때문이다’와 무성(無性)의 해석 ‘이는 곧 법공(法空)이니, 조금이라도 공이 아닌 법이 없기 때문이다’를 나란히 인용²⁷⁾한 뒤, ‘지금 여기서 논하는 이공의 여(如)는 그것들을 총괄하는 것이니, 어떤 법도 이공 아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변행진여가 이공소현(二空所顯)의 진여임을 확정한다. 요컨대 소연 체계의 중심에 놓인 이무아의 진여가 증득 체계의 기점에서 다시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이 점점이야말로 명칭을 달리하는 두 유형이 하나의 수행론적 구조로 접합될 수 있는 내용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7종진여에서 10종진여로의 전개는 진여 개념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를 설명하는 교학적 관심이 존재의 실성(實性)에 대한 규명에서 수행 계위의 체계화로 이동한 결과를 반영한다. 『해심밀경』이 유가행자의 수행 경험과 그 소연 구조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성유식론』은 이를 오위(五位)의 수행 체계 속에 재구성하고 조직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10종진여의 성립은 십지(十地)·십승행(十勝行)·십중장(十重障)의 수행 체계에 대응하는 진여의 단계적 서술을 요구한 교학적 체계화의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7종진여와 10종진여는 명칭과 구성 방식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일미진여를 각각 소연과 증득이라는 상이한 관점에서 해명한 체계라는 점에서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성유식론』 안에서 유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식경론에 전개된 진여 유형론은 하나의 일관된 수행론적 체계를 이룬다. 수행자는 지관의 소연(所緣) 구조 속에서 여소유성, 곧 7종진여를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진여작의(眞如作意)를 통해 법상(法相)과 의상(義相)을 차례로 제거한다. 이어 견도(見道)에서는 지(智)와 진여가 평등평한 무분별지의 증득에 이르고, 수습위(修習位)의 십지에서는 10종진여를 차례로 증득하면서 이장(二障)의 추중(麤重)을 전사(轉捨)하고 이전의(二轉依)의 묘과를 전득(轉得)한다. 이러한 수행의 전개에서 7종진여는 수행자가 관찰하고 증득해야 할 진여를 소연의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이며, 10종진여는 전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증득되는 진여의 공덕을 수행의 차제에 따라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두 진여 체계는 서로 다른 교설이 아니라, 동일한 일미진여(一味眞如)를 각각 소연과 증득이라는 상이한 수행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상보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식의 진여설은 존재론적 명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여의 관찰에서 무분별지의 증득과 전의에 이르기까지 수행자의 인식 전환과 수행의 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조직한 수행론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측과 규기의 주석을 비교하여 7종진여와 10종진여에 대한 해석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원측과 규기의 진여 해석

1. 원측 『해심밀경소』의 7종진여 해석: 세 계열의 회통

원측의 『해심밀경소』는 「분별유가품」의 7종진여를 설하는 부분을 표장거수(標章舉數)·차제별석(次第別釋)·사평등속당(四平等屬當)의 세 단락으로 과문(科文)하고, 각 진여에 대해서는 여러 논서의 견해를 대조하면서 상세한 주석을 제시한다.²⁸⁾ 그 가운데 주석사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7종진여에 대한 해석을 세 계열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대목이다.

원측은 먼저 ‘이 칠진여는 본래 『해심밀경』에서 설해졌으나, 여러 논사가 이를 해석하면서 견해를 달리하였다’고 전제한 뒤, 첫째로 『불지경론』·『삼무성론』·『십팔공론』의 계열을 제시한다. 이 계열은 오직 진여 자체에 의거하여 일곱 진여를 구분하는 입장으로, 실상진여만을 지업석(持業釋)으로 보고, 나머지 여섯 진여는 모두 의주석(依主釋)으로 해석한다.²⁹⁾ 다시 말해,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유전·유

25) 『成唯識論』(T31, 46c).

26) 『成唯識論』(T31, 54b).

27) 『成唯識論述記』(T43, 591c-592a).

28) 『解深密經疏』(X21, 321a-c). 원측 『해심밀경소』의 국역으로는 이종철(2019); 백진순 역(2021)이 있다.

29) 『解深密經疏』(X21, 321a-b).

식·안립 등의 명칭은 모두 진여가 관계하는 법을 따라 붙여진 것이라는 이해이다.

이어 원측은 둘째로 『대승장엄경론』 제12와 『중변분별론』 제2의 계열을 제시한다. 이 입장은 오직 상(相)을 따라 설한 것(唯隨相說)으로 이해하여, 유전·유식·안립 등의 각 법이 그 자체의 자성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진여라 이름한 것이지, 일미(一味)의 진여 자체를 직접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해석에서는 일곱 진여 모두가 지업석으로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원측은 『성유식론』의 입장을 제시한다. 『성유식론』은 앞의 두 해석을 서로 배척하지 않고 함께 포괄하는데, 진여 자체의 측면에서는 『불지경론』 등의 해석과 같이 일미의 진여를 말하고, 상을 따라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대승장엄경론』과 『중변분별론』의 해석을 따른다는 것이다.³⁰⁾ 요컨대 원측은 ① 일미의 진여 자체를 일곱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해석, ② 각 법의 상(相)을 따라 진여를 설명하는 해석, ③ 이 두 관점을 아울러 수용하는 『성유식론』의 해석이라는 세 계열을 구분한다. 특히 그는 앞에서 살펴본 『성유식론』의 이중적 해석, 곧 약체(約體)에서는 일곱 진여 모두가 원성실성에 속하고, 약전(約詮)에서는 각 진여가 설명하는 법에 따라 삼성과의 상섭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성유식론』이 두 계열을 종합한 해석임을 논증한다.

이 대목은 원측 주석의 방법론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첫째, 그는 육합석(六合釋)을 문법적·의미론적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실상진여’와 ‘유전진여’ 등의 복합어가 각 해석 계열에서 지업석(持業釋)으로 성립하는지, 의주석(依主釋)으로 성립하는지를 일일이 분석한다. 이처럼 명칭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각 논서가 전제하는 진여 이해의 차이를 교리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있다. 둘째, 서로 다른 논서의 견해를 우열의 관계로 재단하기보다, ‘각기 한 뜻에 의거하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各據一義, 故不相違]’는 회통(會通)의 원칙 아래 상호 보완적인 해석으로 이해한다. 이 구절은 원래 『집론』·『잡집론』과 『유가사지론』의 여소유성(如所有性)·진소유성(盡所有性)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회통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는 개별 논의를 넘어, 다양한 해석 전통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려는 원측 주석의 기본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원측의 문헌 활용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그는 진제(眞諦) 역의 『삼무성론』·『십팔공론』과 구역(舊譯) 『중변분별론』을 신역(新譯) 문헌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인용하면서, 각 문헌이 제시하는 해석의 의의를 존중하고 이를 회통적으로 이해한다. 그의 주석 태도는 주로 신역 유식 문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규기의 해석 방식과 구별되는 원측 유식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번역 계통의 차이에 따라 문헌의 권위를 선별하기보다, 서로 다른 전통을 하나의 교학 체계 안에서 회통적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해석 방법이 여기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원측은 「일체법상품」의 원성실상(圓成實相)을 주석하면서 이미 ‘삼성(三性)과 칠진여는 어떻게 서로 상섭하는가’라는 문답을 설정하고, 『성유식론』 권8의 7종진여 해설을 거의 전부 인용하고 있다.³¹⁾ 이는 원측이 『성유식론』의 7종진여 해석을 『해심밀경』 이해의 중요한 해석 근거로 수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순히 전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전진여와 유식진여 등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그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다.

대표적으로 유전진여에서는 ‘유위(有爲)’를 사상소위(四相所爲)와 번뇌소위(煩惱所爲)의 두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고, 유식진여에서는 ‘능관(能觀)의 염정 유식관지(唯識觀智)가 곧 진여’라는 협주를 덧붙인다. 특히 후자의 해석은 무분별지와 진여의 일미평등(一味平等)을 전제로, 능증(能證)의 지혜까지 유식진여의 의미 안에 포섭하려는 원측의 독자적 이해를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은 「분별유가품」의 사평등(四平等) 주석에서 ‘증득되는 멸(滅)을 들어 능증의 지혜에도 평등의 뜻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한 내용과도 긴밀하게 상응한다.³²⁾ 이와 함께 원측이 인용한 『성유식론』의 문장이 현행본과 몇몇 대목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굴천지소(橘川智昭)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³³⁾ 이러한 사실은 『해심밀경소』가 단순한 주석서를 넘어, 『성유식론』 성립 초기의 텍스트 전승 양상을 전하는 문헌사적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시사한다.

2. 규기 『성유식론술기』의 해석: 약전변체(約詮辨體)와 가립

규기의 『성유식론술기』는 『성유식론』 권8의 7종진여 문단을 주석하면서, 먼저 그 전거로 『해심밀경』, 『유가사지론』 권77, 『현양성교론』 제3, 『중변분별론』 제2, 『불지경론』 제7을 차례로 제시한 뒤, 그 핵심 취지를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30) 『解深密經疏』(X21, 321b).

31) 『解深密經疏』(X21, 256b-c). 원측은 “問. 此三性與七真如何相攝? 解云. 如成唯識第八卷說.”이라 하여 『성유식론』 권8의 칠진여 문단 전체를 인용하고, 유전진여·유식진여 등에 자신의 해석을 부가한다.

32) 『解深密經疏』(X21, 321c).

33) 橘川智昭(1994).

일곱 가지로 나눈 것은 능전(能詮)에 따라 시설한 것이며, 진여의 체(體)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³⁴⁾

능전에 따라 시설한 것[從能詮說]은 7종이라는 구분이 진여 자체의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설과 언표의 층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진여의 체(體)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일곱이라는 구분은 능전(能詮)에 따른 가설(假說)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성유식론술기』의 7종진여 주석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유전진여에 대한 주석이다. 규기는 ‘일체 유위법의 생멸성이니, 성(性)은 곧 진여이다. 전(詮)에 의거하여 생멸이라 이름하고, 성이 곧 그 여(如)임을 말한 것이다. 전에 의거하여 말함은 아래에서도 이에 준하여 알라’³⁵⁾라고 한다. 이는 규기가 ‘약전(約詮)’이라는 해석 원칙을 7종진여의 각 항목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구역 『중변분별론』이 이 일곱 진여를 ‘분파진실(分破眞實)’이라 번역한 데 비해, 신역에서는 이를 ‘차별진실(差別眞實)’로 옮긴 점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신·구역의 술어 차이를 비교하고 신역 번역의 개념적 정밀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러한 태도는 『성유식론술기』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전(約詮)의 원칙은 유식진여(唯識眞如)에 대한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규기는 『성유식론』의 유식진여 정의를 풀이하면서 『현양성교론』의 ‘심(心)이 물들면 중생이 물들고, 심이 청정하면 중생이 청정하다’는 문장을 인용한 뒤, ‘식의 진여를 보면 곧 이 염정(染淨)의 심 등을 알 수 있으니, 전(詮)에 의거하면 곧 의타기(依他起)요, 이(理)에 의거하면 곧 진여이다[約詮即依他, 據理即眞如]’라고 해설한다.³⁶⁾ 여기서 ‘유식’이라는 명칭이 가리키는 염정의 심은 어디까지나 약전의 층위, 곧 의타기의 유위법에 속하고, 진여는 거리(據理)의 층위에서 그 심의 실성으로서만 성립한다. 규기에게 유식진여란 ‘식이 곧 진여’라는 뜻이 아니라 ‘식의 진여’, 곧 염정식을 관통하는 이(理)를 가리키는 것이며, 따라서 능관(能觀)의 관지(觀智)는 의타기에 속한 법으로서 진여 그 자체와 준별된다. 앞 절에서 본 원측이 능관의 유식관지가 유식진여의 의미 안에 포섭한 것과 정확히 대비되는 지점으로, 지(智)와 여(如)의 일미평등을 강조하는 원측의 시선과 지(智)·경(境)의 구분을 견지하는 규기의 시선이 동일한 항목의 주석에서 갈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 원칙은 10종진여에 대한 주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규기는 변행진여(遍行眞如)의 ‘변행(遍行)’에 대해 ‘여기서 진여는 전에 의거하여 그 체를 밝힌 것이다[約詮辨體]. 그렇지 않다면 초지의 진여는 앞에서는 두루하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두루하게 된다는 말인가. 진여 자체를 두고 두루하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전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두루함을 설하겠는가.’³⁷⁾라고 반문한 뒤, 이어 그 논의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진여는 일미(一味)인데 어찌 열로 나뉘어 용납하겠는가. 진여에는 실로 구별이 없으나, 증득되는 바와 생겨나는 바와 능히 증득하는 수승한 공덕에 따라 열 가지를 가립한 것이다.³⁸⁾

나아가 규기는 폐립(廢立)의 문답에서 ‘초지에서 이미 십진여 모두에 통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증득이 아직 원만하지 못하므로 뒤의 진여를 차례로 건립한다. 행(行)과 위(位)에 열 가지 차체가 있으므로 진여 또한 열 가지로 시설한 것이다.’³⁹⁾라고 설명한다. 이는 10종진여의 ‘십(十)’이 진여 자체의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십지(十地)와 십승행(十勝行)이라는 수행 계위의 구조에 대응하여 설정된 가립적 구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요컨대 규기에게 7종진여의 ‘칠(七)’과 10종진여의 ‘십(十)’은 모두 능전(能詮)의 편의와 수행 계위에 따라 시설된 가립수(假立數)일 뿐이며, 진여 자체는 언제나 차별 없는 일미(一味)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호법(護法) 계통의 유식교학이 진여를 응연상주(凝然常住)하는 소증리(所證理)로 파악하는 입장을 유형론의 차원에서 일관되게 관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여는 수행 단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설명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결코 분화되거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훈습이나 수연(隨緣)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한편 규기는 사종열반(四種涅槃)을 주석하면서,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清淨涅槃)의 체(體)를 7종진여 가운데 실상진여의 이(理)로 규정한다.⁴⁰⁾ 본래자성청정열반을 ‘일체법의 상(相)인 진여의 이(理)’로 규정한 데 대해, 규기는 그것이 곧 이공소현(二空所顯)의 실상진여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배대는 뒤에서 살펴볼 원측의 해석과 대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34) 『成唯識論述記』(T43, 548b).

35) 『成唯識論述記』(T43, 548b).

36) 『成唯識論述記』(T43, 548b).

37) 『成唯識論述記』(T43, 591c25-26).

38) 『成唯識論述記』(T43, 593a).

39) 『成唯識論述記』(T43, 593a).

40) 『成唯識論述記』(T43, 596b21-24).

3. 원측과 규기의 진여관 대비

두 주석가의 진여 해석은 우선 공통된 교학적 기반 위에서 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진여 자체는 무차별·일미라는 점을 전제하며, 7종과 10종이라는 구분을 진여 자체의 실질적 차별이 아니라 가립(假立)으로 이해한다. 원측이 『불지경론』 계열과 『중변분별론』 계열을 구분하면서 ‘일미의 진여’와 ‘수상(隨相)의 진여’를 함께 인정하는 것과, 규기가 ‘약전변체(約詮辨體)’와 ‘가립십종(假立十種)’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표현과 논증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진여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해에서는 서로 일치한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진여를 수행 계위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며, 진여수연(眞如隨緣)과 같이 진여가 능동적으로 전개된다는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원측과 규기는 모두 현상이 전한 신역 유식, 곧 호법(護法) 계통 유식교학의 기본 입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주석 방법에서 먼저 드러난다. 원측은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서의 견해를 폭넓게 수집하여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신역 문헌뿐 아니라 진제(眞諦) 역의 구역(舊譯) 문헌까지 함께 검토한 뒤, 육합석(六合釋) 등의 분석을 거쳐 ‘각거일의(各據一義), 고불상위(故不相違)’라는 회통의 원칙으로 종합한다. 이에 비해 규기는 『성유식론』의 문맥과 호법의 정의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 여러 설을 판별하고 정리하며, 신·구역의 대비에서도 일관되게 신역의 해석을 중심에 둔다. 동일한 7종진여를 두고 원측이 세 해석 계열의 병존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비해, 규기가 ‘종능전설(從能詮說)’이라는 하나의 원칙 아래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방법론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차이는 진여의 구체적인 해석에서도 드러난다. 첫째는 본래자성청정열반과 7종진여의 대응 방식이다. 규기는 본래자성청정열반의 체를 7종진여 가운데 실상진여의 이(理)에 배대하는 반면, 원측은 이를 특정한 하나의 진여에 한정하지 않고 7종진여를 관통하는 통상(通相)의 진여로 이해한다. 규기의 해석이 이공소현(二空所顯)이라는 실상진여의 정의를 기준으로 열반의 체를 특정 유형과 연결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원측은 열반의 근거인 진여를 개별 유형 이전의 총상(總相)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는 유형화된 진여보다 일미의 진여 자체를 더욱 중시하는 원측의 시선과, 유형 체계 내부의 논리적 대응 관계를 중시하는 규기의 시선을 각각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유식진여에 대한 해석이다. 원측은 능관(能觀)의 유식관지(唯識觀智)까지 유식진여의 의미 안에 포섭함으로써 지(智)와 여(如)의 일미평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이에 비해 규기는 진여를 근본지와 후득지의 공통된 경(境)으로 규정하여, 지와 경의 구분을 보다 엄격하게 유지한다. 양자의 차이는 진여와 지혜의 관계를 바라보는 강조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곧바로 원측을 구역 유식에 가까운 학자로 규정하거나, 일승(一乘) 중심의 사상적 경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원측 역시 삼승보리의 평등을 소증(所證)의 택멸(擇滅)에 차별이 없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설명하며, 그의 회통적 해석 또한 기본적으로는 신역 유식의 교학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진여 유형론이라는 범위에서 확인되는 원측과 규기의 차이는 교학적 기반의 차이라기보다 해석 방법과 논증의 강조점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원측과 규기는 동일한 호법계 유식의 진여관을 공유하면서도, 이를 해석하고 조직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원측이 다양한 문헌 전통을 회통하여 진여의 일미성과 해석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다면, 규기는 약체(約體)와 약전(約詮), 종능전설(從能詮說) 등의 원칙을 통해 진여 유형론을 하나의 일관된 교학 체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주석상의 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교학적 기반 위에서 전개된 원측 유식과 규기 유식의 해석학적 성격을 가장 섬세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여 유형론은 두 주석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장 미시적으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비교 지점이며, 원측 유식과 규기 유식의 해석학적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라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해심밀경』과 『성유식론』에 나타난 7종진여와 10종진여의 내용과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둘러싼 원측의 『해심밀경소』와 규기의 『성유식론술기』를 비교 분석하였다.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해심밀경』의 7종진여는 지관 수행의 소연인 여소유성(如所有性)의 내용을 체계화한 교설이다. 7종진여는 연기·이무아·유식성·사성제 등 수행자가 관찰해야 할 진여의 내용을 분류한 것으로, 진여 자체를 분할한 것이 아니라 일미(一味)의 진여가 드러나는 여러 측면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진여작의에 의한 상(相)의 제거와 소작성판에서의 전의(轉依)는 진여가 명상 수행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수행의 준거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둘째, 『성유식론』은 7종진여를 삼성(三性)과의 상설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한편, 견도(見道)의 무분별지와 전의의 구조 속에서 진여의 증득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10종진여는 수습위(修習位)의 십지(十地) 수행에 대응하여 진여 증득의 차제를 조직한 교설로서, 진여

자체의 구분이 아니라 수행 단계에 따라 드러나는 공덕의 차제에 의거하여 가립된 유형이다. 따라서 7종진여가 소연(所緣)의 측면에서 진여를 설명한 체계라면, 10종진여는 증득(證得)의 측면에서 진여를 설명한 체계이며, 양자는 모두 진여 일미라는 동일한 전제 위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이로써 7종에서 10종으로의 전개는 진여 개념의 변화가 아니라, 유식교학의 관심이 관찰의 대상인 진여에서 수행 과정에서 증득되는 진여로 확대·심화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원측과 규기는 모두 진여의 무차별성과 7종·10종의 가립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호법계 유식의 교학적 기반을 공유한다. 그러나 원측이 다양한 문헌 전통을 회통하여 진여의 일미성과 해석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규기는 약체(約體)와 약전(約詮), 중능전설(從能詮說)의 원칙 아래 진여 유형론을 하나의 일관된 교학 체계로 정리하였다. 또한 본래자성청정열반과 7종진여의 대응, 유식진여와 지(智)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강조점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교학적 기반 위에서 전개된 원측 유식과 규기 유식의 해석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은 유식의 진여설이 『대승기신론』 계통의 진여수연설과 구별되는 수행론적 진여론임을 문헌에 근거하여 확인하였다. 유식 경론에서 진여의 유형은 언제나 수행과의 상관 속에서 설정되며, 진여 자체는 어떠한 층위에서도 일미무차별의 성격을 유지한다. 특히 본 연구는 7종진여와 10종진여가 각각 소연(所緣)과 증득(證得)이라는 서로 다른 수행론적 관점에서 동일한 진여를 설명하며, 양자가 소연—작의—증득—전의로 이어지는 하나의 수행 구조를 구성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식의 진여설은 존재론적 명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진여를 관찰하고 무분별지로 증득하며 전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론적으로 조직한 수행론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유식의 진여는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면서도 스스로는 어떠한 변화나 작용의 주체가 되지 않는 소증리(所證理)로 이해된다. 바로 이 점이 진여의 능동적 전개를 인정하는 여래장 계통의 진여관과 유식 진여설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성유식론장중추요』·『성유식론요의등』·『성유식론연비』 등 후대 법상종 주석에서 전개된 진여론과, 원측 진여관과 여래장 사상의 관계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유식의 진여설은 존재론적 진여론을 넘어, 수행의 대상과 수행의 증득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조직한 수행론적 진여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심밀경』과 『성유식론』에 설해진 7종진여와 10종진여의 내용과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둘러싼 원측의 『해심밀경소』와 규기의 『성유식론술기』를 비교·분석하였다. 『해심밀경』의 7종진여는 지관(止觀) 수행의 소연(所緣)인 여소유성(如所有性)의 내용을 체계화한 것으로, 수행자가 관찰해야 할 진여의 여러 측면을 제시한다. 반면 『성유식론』의 10종진여는 오위(五位) 가운데 수습위(修習位)의 전의(轉依)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 십지(十地)에 따른 진여 증득의 차제를 체계화한 수행론적 유형이다.

본 연구는 7종진여와 10종진여가 서로 독립된 교설이 아니라 동일한 진여를 서로 다른 수행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상보적 체계임을 밝혔다. 7종진여가 지관 수행의 소연 구조를 중심으로 진여의 내용을 유형화한 것이라면, 10종진여는 전의의 과정에서 점차 증득되는 진여의 공덕을 수행 계위에 따라 조직한 것이다. 따라서 7종에서 10종으로의 전개는 진여 개념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유식교학의 관심이 존재의 실성에 대한 규명에서 수행 계위의 체계화로 이동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원측과 규기의 주석을 비교한 결과, 양자는 모두 진여일미(眞如一昧)와 유형의 가립성(假立性)을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해석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원측은 다양한 문헌 전통을 회통하여 진여 해석의 다층성을 제시하는 반면, 규기는 약체(約體)·약전(約詮)과 중능전설(從能詮說)의 원칙 아래 진여 유형론을 일관된 교학 체계로 정리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호법계 유식교학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학적 성향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유식의 진여설은 존재론적 교설이 아니라 수행자의 인식 전환과 전의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행론적 체계이며, 7종진여와 10종진여는 각각 소연과 증득이라는 상이한 수행 국면에서 동일한 진여를 해명하는 상보적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7종진여, 10종진여, 원측, 규기, 유식수행론

참고문헌

- 解深密經 (T16).
瑜伽師地論 (T30).
成唯識論 (T31).
成唯識論述記 (T43).
解深密經疏 (X21).
김치온(2003). 眞如에 대하여: 『成唯識論』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7, 437-461.
백진순 역(2021). 해심밀경소 제6 분별유가품 상하, 동국대학교출판부.
안성두(2016). 유식(vijñaptimātra)에 대한 관념론적 해석 비판: 분별과 진여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61, 3-40.
안유숙(2023). 소연(所緣)으로서의 진여와 그 증득에 관한 고찰 - 『해심밀경』의 「분별유가품」과 「지바라밀다품」을 중심으로. 禪學(선학), 65, 149-171.
이종철(2019). 원측 해심밀경소 분별유가품,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한자경(2001). 無分別智와 眞如: 『성유식론』을 중심으로 분별식에서 무분별지예로의 이행을 논함. 불교학연구, 3, 33-57.
橘川智昭(1994). 円測撰『解深密經疏』引用の『成唯識論』と現行『成唯識論』との比較研究. 東洋大学大学院紀要, 30, 127-138.
長谷川岳史(1997). 円測の眞如觀. 龍谷大学佛教学研究室年報, 10, 2-11.